어떤 악이 들어와도 내 주인공에 탁 맡겨 놓고 그냥 지켜보라

☞ A29면에서 계속

으로 간다고 그러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양 무제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죽여서 벌써 묻었는데 아니, 달마 대사가 웬일이냐고, 그때에 양 무제가 생각을 한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산소를 파 보니까 거기에 신발 한 짝만 남기고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 무제가 생각했대요. '저승에도 달마 대사가 있고 이승에도 달마 대사가 있구나. 달마 대사가 이렇게 둘이 아닌데 나를 가르치느라고 그런 걸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고선 땅바닥을 두드렸대요.

그랬듯이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게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시주를 하고 있으면 같이 나누어 먹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내가 가게 갈 때 말입니다, 물건을 사러 갔기 때문에 돈을 그 사람에게 줬다는 생각을 안 하고 갖다가 주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아니, 돈 갖다 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주상으로 그냥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 게 와, 그 대가가. 그게 공덕이거든. 그런데 내가 꼭 물건을 갖다 주고는 그 값어치를 받아 가지고 가려고 그냥 무진 무진 애를 쓰죠. 저 사람한테 만날 내가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야. 내가 줬다는 거야. 아니, 거기서는 그것 줬다고 그러니 공덕이 있을 법이 있습니까?

공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아파도 이 몸 안에서 한마음이 돼 주는 게 이치고 바깥에서도 한마음이 돼서 그냥 전부 한마음으로 들게 되니 아픈 사람이 따로 없는 거죠. 이 몸이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먼지 앉을 자리도 없기 때문에 병 붙을 자리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병이 붙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돌아가다 보면 그냥 병도 나아 버려.

그렇듯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하는 거보다도 항상, 나는 그래요. 우스갯소리도 되지마는 진짜로도 그래요. "그 병 낫게 해 주면 날 뭘 줄 거야?" 그러죠. 그러면 "내가 공부를 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고마운데 뭐는 못 드리겠습니까?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내 몸도 버릴 텐데…." 아,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달라시는 대로 드리죠." 이래. 내가 도둑이야, 달라는 대로 주게? 하하하.

그래서 L.A.의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좀 더 화목과 평화와 사랑, 그리고 가환이 없이 병고가 없이 자유스럽게, 여러분 한생각에 이루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두서없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렸습니다. 두서없이 막 뿌리는데 거기서 그래도 여러분은 주울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하나 나를 떠나서 믿는다면, 여러분을 여러분이 떠나지 말고 믿으시고,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이 되걸랑 따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나와 이렇게 동등하게끔 될 때까지 나를 따르라는 거지 나를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믿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 주인공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을 이익하게 할 수 있고 이끌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이 있걸랑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질문자1(여) 스님 가르치심을 통해서 배운 바가 많은데요, 제 나름대로 근본 그 마음은 저희 마음이나 스님 마음이나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이나 또는 예수님 마음이나 생명의 모든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 특히 이 미국에는 불교보다도 기독교라든가 이런 종교가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서 인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다 같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거든요.

이 우주에 있는, 같이 돌아가는 그 마음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로 돌아가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길은 대상이 없는 그 자리, 아무것도 때 묻지 않은 그 자리가 결국은 모든 우주를 돌고 돌게 하는 그 원동력이다라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상당히 격하시키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혹시 또 제가 잘 모를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내가 요거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엊그저께 수박을 하나 사 왔습니다. 그랬는데 수박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과거 씨를 찾는다면 과거 씨를 저 바깥에서 찾는데, 내가 지금 작년 씨를 가지고 올해 심어서 자기 수박이 났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그 수박들이 자기 씨 찾는다고 글쎄, 과거에 심은 자리를 가지고 찾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밭에 가서 찾습니까? 어디 가 찾습니까? 그런데 수박이 있다 하는 소리가 말입니다, "내 씨는 내가 과거 씨를 가지고 수박이 됐고 그 수박 속에 씨가 들어 가지고 이 세상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그 씨가 되남아서 내년 봄 오늘에 또 수박이 나서 또 먹이고 또 남고 또 먹이고 또 남고 그러는데 아니, 다른 수박들이 글쎄, 자기 씨를 자기 안에서 찾지 못하곤 저 바깥에 심은 자리를 찾아다니더군요." 아이, 수박이 이러더군요, 허허허.

인제 그거는 그렇게 해 두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것도 개입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내 씨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박과 씨가, 씨가 없으면 수박이 되지 않고 수박이 없으면 씨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과 똑같은 얘깁니다. 여러분의 생명 근본, 이 마음 내는 것, 이 육체가 없으면 안 되니 그냥 이거는 불가분득 하나로 뭉쳐져서 일체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일체로 돌아가는 동시에 우리가 한마음이다, 하나님, 이렇게 기독교에서 믿는 거 가톨릭교에서 믿는 거는, 즉 말하자면 하나로 모아서 고상에다가 하나로 집중을 한다고 합시다. 그전에 나도 가톨릭교에 입교해서 좀 다녀 봤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도 되고 주도 되고 그 고상에 다 그냥 모두 일임을 시키는데 뭐, 한 트럭 실었다가도 거기다 그냥 다 맡깁니다, 하나님한테다가.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얘깁니다.

나로 인해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벌써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로 이렇게 자꾸 바깥에서 하니까 자기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죠. 자기 영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덕도 될 수가 없죠. 아무리 갖다가 시주를 해도, 아무리 갖다가 남을 위해서 일을 해도 내가 한다는 그 마음이 있거든.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으니까 자기 주인공에 자기부터, 자기 영혼부터 구원을 받고 난 뒤에야, 자기부터 발견하고 난 뒤에야 바깥의 둘이 아닌 도리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러는 거는 내 님입니다, 내 님! 하나의 내 님! 내 님부터 찾아라 이거야. 내 님부터 발견하면 바로 모두 하늘님을 안다고. 그래 하늘님을 알면 한울님을 알아. 내가 없으면 하나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부터 알고 그러고 나면 둘이 아닌 도리, 하늘님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한울님을 알게 돼. 우주간 법계 천체가 들린다 이 소리야. 듣는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둘이 아니게 듣는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반면에 모든 게 하나로 되는 거지. 하나로 되는 거야. 둘이 아니지. 어느 종교든지 마지막에 가서는 둘인가, 어디? 마지막 아니라도 둘이 아니지. 그러나 안으로 해서 내가 실천으로 옮기느냐 바깥으로 찾아서 그렇게 실천을 못 하느냐 이게 문제지.

질문자1(여) 그러니까 동등한 자리라고 봐도 되는지요.

큰스님 동등한 자리건만 그 사람이 행하는 게 동등치 못한 거지. 동등한 자린데 그 사람 개개인이 하나하나 하는 행이 그렇지 아니하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너 나가 둘이 아니면서도 너 나가 뚜렷하게 있는 줄 알아야 한다 이거지. 학교는 학교인데 소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이 있지. 그것이 모두가 가르치는 학교는 다 마찬가지건만 그 개개인이 어린애가 있고 조금 큰 게 있고 조금 더 큰 게 있고, 대학이 있고 대학원이 있듯이 그렇게 차원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을 따질 때에, 이 지금 마음공부 하고 가는 사람도 탑을 쌓아서 이 봉우리를 턱 올려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새로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 쌓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듯이 인간도 살아나가는 데 그렇다 이거죠.

질문자2(남) 세상을 살다 보면, 주위에서 절대 악이 온다 이거예요. 그럼 이 악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큰스님 반응을 왜 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전력은 있는데 이 가설만 만들어 놓고 전력이 없으면 불 안 들어오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만사가 전부 인간 마음의 근본에 다 가설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불을 켜는데 그쪽에 어떻게 불이 안 들어오겠느냐 이거야, 나하고 벌써 근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 주인공에 탁 맡겨 놓고 그냥 지켜보고 있어 봐요. 그리고 만나걸랑 부드럽게 말해 줘요. 뭐, 이 몸뚱이 가지고 얼마나 산다고.

모두 가지고 갈 건가요? 내 몸뚱이도 버릴 텐데 뭐 가지고 갈 게 있다고 그렇게 아웅다웅 그래야만 합니까? 편안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걸 재산을 하늘땅만큼 가졌다 하더라도 내 이 진실한 마음하고는 바꿀 수 없어. 그게 부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 주인공,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즉 말하자면 정(定), 주인공에 다 이렇게 맡겨 놓고 그렇게 부드럽게 '우리가 한마음으로 그저 규합돼서 얼굴 붉히지 않고 살게 해 주는 것도 너 아냐, 이 영원한 친구야!' 이렇게, '한마음 친구야!' 이래도 좋아요.

질문자2(남)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 부드러움도 곧 선 아닙니까?

큰스님 선도 없고, 이 공부 하는 사람은 선도 없고 악도 없어.

질문자2(남) 아니, 참선하는 그 선이 아니라요, 좋다 하는 선. 아까 그것도 이분법 아닙니까?

큰스님 그래요. 그것이 선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선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선이 되지.' 이런 생각조차도 그냥 다 놔요. 행이 중요하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행하다 보면 그 만 가지, 당신 나무에서 익은 실과가, 한 실과가 만 가지 맛을 낼 때 그 즐거움이란 말로 못 해서 하늘을 보고 한나절을 웃고 땅을 보고 한나절 울었대요. 어때요? 그래서 앞뒤 터진 대피리 소리는 우주 법계를 두루 하더래요.

좀 그렇게 무조건 당신을 믿고 당신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모든 거를 그저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거라면 공부할 수 있겠죠. 좌선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 편안해야 좌선이고, 망상이라는 것도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참나를 발견하게 이끌어 주는 바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망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망상이라고 하는 관념 그것도 놔 버려야죠. 아,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분별이 없으면 목석인데 목석이 돼도 아니 되니까 분별을 하더라도 분별을 분별이라고 하지 말고 망상을 망상이라고 하지 말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만이 열반으로 직결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렵고 괴롭게 사시지 말고 편안하게 사시라 이거죠. 사람이 한 번 이 세상에 났다가 한 번 옷 벗기는 마찬가진데 옷 벗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좀 알고나 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12월 2일 국외지원 법회 법문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사람이 한 번 이 세상에 왔다가 한 번 옷 벗기는 마찬가진데
> 옷 벗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 좀 알고나 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모두를 자기와 같이 본다면 그 마음의 향기 에너지가 상대까지 밝아지게 한다.
- 대행 선사 법어 -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중동)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2023 謹賀新年 계묘년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선원

자기 근본을 믿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마음의 샘물을 먹을 수 있다.
- 대행선사법어 -

사부대중일동

